

## DACUM 기법을 통한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직무분석 :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황혜정<sup>1</sup>, 김광환<sup>2\*</sup>, 김용하<sup>2</sup>, 이무식<sup>3</sup>, 심문숙<sup>4</sup>  
<sup>1</sup>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복지경영학과, <sup>2</sup>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  
<sup>3</sup>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sup>4</sup>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Job Analysis by DACUM Method in the Field of Well Dying Education Model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Social Worker

Hye-Jeong Hwang<sup>1</sup>, Kwang-Hwan Kim<sup>2\*</sup>, Yong-Ha Kim<sup>2</sup>, Moo-Sik Lee<sup>3</sup>,  
Moon-Sook Shim<sup>4</sup>

<sup>1</sup>Dept. of Health & Welfare Management, Konyang Cyber University

<sup>2</sup>Dep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sup>3</sup>Dept. of Preventive Medicine, Konyang University

<sup>4</sup>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대상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DACUM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의료적 시각과 인문학적 시각을 동시에 수용하는 융합된 죽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무와 과업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동년 3월 10일까지 직무분석을 위해 DACUM 위원 8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및 인문사회분야의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의료적, 인문학적 시각 및 사회적 시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상실과 애도’ 책무에 대한 과업으로 ‘죽음의 수용과 이해’와 ‘상실 스트레스 치유 및 자살 예방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죽음교육의 필요성’ 책무에 대한 과업으로 ‘전통사회의 죽음과 현대사회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의 이해’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인문학적 시각에 의한 죽음의 수용과 이해를 위한 힐링과 치유가 강조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duties and tasks of a social welfare worker when developing a combined death education program for welfare workers using DACUM method. The program would adopt both a medical and humanistic perspective that can be applied to real life. The study period was between March 2 to March 10, 2015. The study was conducted on eight DACUM committee members who are professors in the field of healthcare 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ir medical, humanistic and social viewpoint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focus of the education needs to be on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death’ and ‘healing the stress from loss and suicide prevention’ as tasks under the duty of ‘loss and mourning’. The tasks for the duty ‘the need for death education’ were identified as ‘death in traditional society and death in contemporary society’ as well as ‘understanding of issues related to death’.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death education programs that emphasize healing for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death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Keywords** : Task Analysis Using DACUM Method, Importance of Death Education, The Need for Death Education, Practice Attitude Towards Death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6035107)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onyang Univ.)

Tel: +82-42-600-8421 email: kkh@konyang.ac.kr

Received June 5, 2015

Revised (1st June 11, 2015, 2nd June 15, 2015)

Accepted August 6, 2015

Published August 31, 2015

## 1. 서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나이든 노인들도 충분히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4]. 하지만 정작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죽음교육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2].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의료기술의 발달이 삶의 질의 연장이 아닌 길이만을 연장시키는 데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에 관심을 갖고 있다[3, 5-7]

죽음에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죽음의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방법이나 대상은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인에게 적용한 설문내용이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으로 죽음의 가치관에 대한 보다 깊은 내용과 이해가 미흡하다[4, 8].

죽음준비교육은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서구와 일본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교육기관을 통해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전문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5, 9].

일반인 중 죽음교육을 받은 대상자에게 죽음교육 교수자로 적합한 전문가를 알아본 결과 죽음준비교육 전문가, 성직자, 의료진(간호사 포함)과 사회복지사 순으로 나타났고 죽음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서는 죽음준비교육 전문가, 성직자, 의료진(간호사 포함)과 사회복지사, 교수 순으로 나타나[6, 10] 죽음준비교육 전문가로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죽음교육 교수자로 사회복지전문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죽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연도별 경향은 1990년대에는 8편에 불과하였으며, 2005-2009년에 들어와 50편(40.3%)으로 매우 높은 연구 성장을 보였다. 출처에서는 석사 학위논문이 59편(47.6%)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구 전공별 동향은 신학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사회복지학에서 29편(28.4%)으로 가장 많이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준비교육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변인은 죽음불안이 23편(31.5%)으로 가장 많은 효과 검증이 되었다[7-11].

사회복지전문가는 죽음에 직면한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원의 획득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적응을 위해 죽음과 죽음과정의 심리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원조하는 휴먼 서비스 전문가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교육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8].

또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생 대상으로 현재 죽음에 대한 만족도 및 죽음교육욕구를 파악하고, 죽음태도를 탐색한 연구는 있었으나[9, 10-13],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 인문학이 융합된 죽음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DACUM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의료적 시각과 인문학적 시각을 동시에 수용하는 융합된 죽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무와 과업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에 있어 기존에 정형화되지 않은 죽음교육 프로그램에서 좀 더 보건의료 및 인문사회를 융합한 실무중심의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함이며, 차후 체계적이면서 기관별 대상자별 연령별 맞춤형 융합죽음교육프로그램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연구의 대상은 직무분석을 위해 구성된 DACUM 위원 8명으로 전공은 보건의료 및 인문사회분야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의료적, 인문학적 시각 및 사회적 시각으로 융합된 측면에서 죽음교육 직무분석을 실시 하고자 각 분야 전문교수진으로 구성하였다.

### 2.2 조사방법

조사는 DACUM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DACUM 설문지는 죽음교육 프로그램 직무분석 항목으로는 임무(Duty) 24개와 과업(Task) 77개로 구성되어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도를 체크하도록 구성하였다. 각각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복지사 대상 죽음교육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죽음을 직접 맞이하는 것보다 죽음을 겪은 사람들과 죽음을 앞둔 노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 세부 과업보다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 2.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실무중심의 죽음교육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및 인문사회분야가 융합된 죽음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을 위해 DACUM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 3. 분석결과

### 3.1 DACUM 위원회의 일반적 특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 직무분석 DACUM위원회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6명(75.0%), 여자 2명(25.0%)이었고, 근무경력은 15년 이하가 6명(75.0%), 16년 이상이 2명(25.0%), 전공은 보건의료분야가 4명(50.0%), 인문사회분야가 4명(50.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ACUM committee members

		N(%)
Gender	Male	6( 75.0)
	Female	2( 25.0)
Job experience	15 years or less	6( 75.0)
	16 years or more	2( 25.0)
Major	Health services	4( 50.0)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 50.0)
Total		8(100.0)

Table 2. Top 5 duties of death education in terms of implementation frequency, importance and difficulty

Duty	Frequency	Ranking	Importance	Ranking	Difficulty	Ranking	Total average
							unit: M±SD
Loss and mourning	3.38±0.52	1	3.38±1.06	2	3.13±0.64	1	3.30±0.22
Issues of medical ethics related to death	3.25±0.89	2	3.25±0.71	4	3.13±0.84	1	3.21±0.22
Sharing the Experience of death and loss	3.00±0.76	5	3.38±0.52	2	3.00±0.54	3	3.13±0.22
Need for death education	3.13±0.64	3	3.50±0.54	1	2.75±0.71	7	3.13±0.24
Understanding issues related to death	2.88±0.84	8	3.13±0.35	7	3.00±0.53	3	3.00±0.21

### 3.2 죽음교육의 임무별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도 상위 5위

죽음교육의 임무별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도 상위 5위를 살펴본 결과 상실과 애도가 전체 평균 3.3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과 관련된 의료윤리적 문제가 3.21점, 사별과 상실의 경험나누기가 3.13점, 죽음교육의 필요성 3.13점,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의 이해가 3.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대상 죽음교육의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상실과 애도,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누기 등 사회복지사로서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중요성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 3.3 상위 5위 임무의 세부 과업별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도

상실과 애도'에서는 '죽음의 수용과 이해'와 '상실 스트레스 치유 및 자살 예방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과 관련된 의료윤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장기이식'과 '자살'이 2.96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상실과 애도'의 세부항목 평균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였다.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누기'에는 '사안별(죽음의 종류)', '대상별(죽음의 대상)'모두 2.92점의 평균을 보였다. '죽음교육의 필요성'은 '전통사회의 죽음과 현대사회의 죽음'이 2.54점의 평균을 나타냈지만 이는 다른 상위 5위 임무의 세부항목 평균에 비하면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의 이해'에 있어서는 '말기 환자의 심리적 변화'가 3.04점으로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과업보다 높은 평균을 띄고 있었다[Table 3].

**Table 3.** Implementation frequency,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tasks ranked top 5 of du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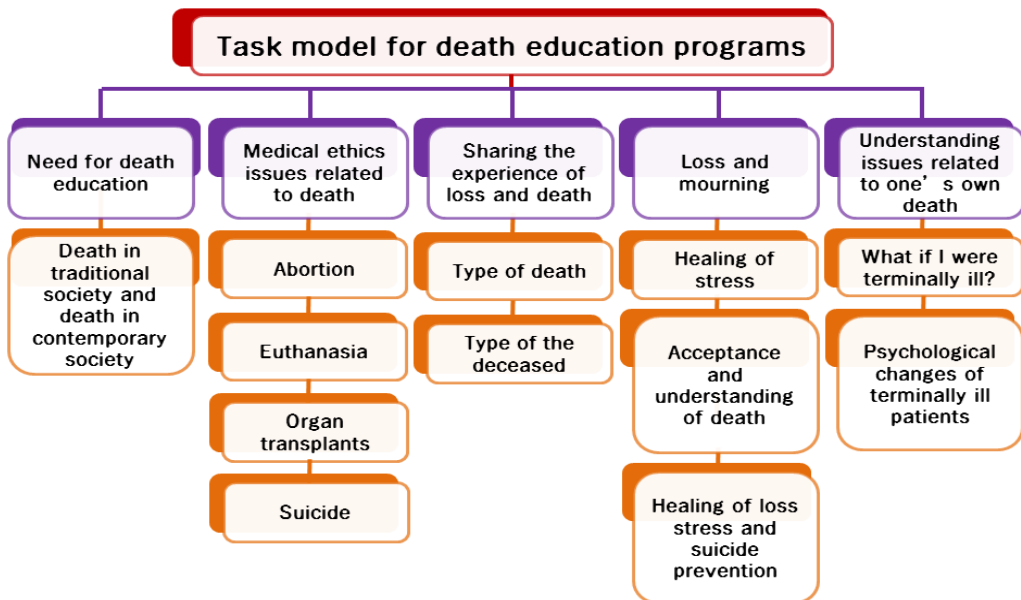
unit: M±SD

Duty	Task	Frequency	Importance	Difficulty	Total average
loss and mourning	Healing of stress	2.50±0.76	3.38±0.74	3.25±0.71	3.04±0.20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death	2.75±0.71	3.38±0.74	3.25±0.71	3.13±0.20
	Healing of stress and suicide prevention	2.75±0.71	3.38±0.74	3.25±0.71	3.13±0.20
Medical ethics issues related to death	Abortion	2.13±0.84	2.75±0.71	3.13±0.64	2.67±0.20
	Euthanasia	2.00±0.93	3.13±0.64	3.38±0.74	2.84±0.20
	Organ transplants	2.25±0.89	3.25±0.71	3.38±0.74	2.96±0.20
	Suicide	2.38±0.92	3.25±0.71	3.25±0.71	2.96±0.20
Sharing the experience of loss and death	Type of death	2.63±0.52	3.13±0.64	3.00±0.54	2.92±0.20
	Type of deceased	2.63±0.52	3.13±0.64	3.00±0.54	2.92±0.20
	Death in traditional society and contemporary society	2.38±0.52	2.50±0.54	2.75±0.46	2.54±0.21
Understanding issues related to one's own death	What if I were terminally ill?	2.38±0.74	2.88±0.64	3.00±0.54	2.75±0.20
	Psychological changes of terminally ill patients	2.75±0.71	3.25±0.89	3.13±0.84	3.04±0.20

**3.4 도출된 죽음교육 프로그램 직무모델**

DACUM기법을 통해 사회복지사 대상 죽음교육에 있어서는 Fig. 1과 같은 임무가 중요시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누기, 상실과 애도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겪거나 맞이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었다.



**Fig. 1.** Task model for death education program concluded through the DACUM method

#### 4. 결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근원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러 철학자와 연구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죽음은 여전히 인간의 근원적 고통으로 남아있다[10]. 사회복지사 대상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14-16] 이 연구에서는 DACUM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의리적 시각과 인문학적 시각을 동시에 수용하는 융합된 죽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무와 과업들을 규명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 대상 죽음교육의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상실과 애도,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누기 등 사회복지사로서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중요하면서 필요한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상실과 애도’ 책무에 대한 과업으로 ‘죽음의 수용과 이해’와 ‘상실 스트레스 치유 및 자살 예방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죽음과 관련된 의료윤리적 문제’ 책무에 대한 과업으로는 ‘장기이식’과 ‘자살’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나 ‘상실과 애도’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교육의 필요성’ 책무에 대한 과업으로 ‘전통사회의 죽음과 현대사회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의 이해’에 책무에 대한 과업으로는 ‘말기 환자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17-19].

DACUM기법을 통해 사회복지사 대상 죽음교육의 임무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누기, 상실과 애도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겪거나 맞이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었다[20].

죽음에 대한 의료·인문적 시각을 동시에 포함한 본 조사는 사회복지사 대상의 특성화된 ‘죽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있어 기존에 강조 되어왔었던 보건의학적 측면 보다 인문학적 시각에 의한 힐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tatistics for the Elderly", 2014.  
 [2] J. G. Jeong, A Study on Death Education Program for Old People,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The*

*Korean Academy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vol. 16, pp. 197-236, 2007.

DOI: <http://dx.doi.org/10.17207/jstc.2007.11.16.197>

- [3] H. J. Hwang, K. H. Kim, Y. H. Kim, S. Y. Ahn, C. H. Lee, M. S. Lee, M. J. Kim, A. Park, M. S. Shim, H. D. Song. Well Dying Education Model Development for the Medical Personnel,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vol. 15, no. 10. pp. 6234-6241. 2014.  
 [4] J. T. Oh, C. G. Kim,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Attitude toward Death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1, pp. 51-69. 2009.  
 [5] K. A. Kang, Comparison of Meaning in Life and Death Attitude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Well-dy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oncology nursing society*, vol. 10, no. 2, pp. 156-162, 2010.  
 [6] K. H. Kim, Y. H. Kim, S. Y. Ahn, C. H. Lee, M. S. Lee, M. J. Kim, A. Park, H. J. Hwang, E. Y. Kim, M. S. Shim, H. D. Song. *The Journal of Targeted at the general public for the Modeling of Well-dying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2, no. 8, pp. 369-376.  
 [7] S. H. Kim, S. W. Byeon. Analysis of the trends of research education on death, *Journal of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2, no. 12, pp. 469-475,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69>  
 [8] B. J. Kramer, A. Z. Boelk, and C. Auer. 2006. "Family Conflict at the End of Life; Lessons Learned in a Model Program for Vulnerable Older Adults",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vol. 9, no. 3, pp. 791-801, 2006.  
 DOI: <http://dx.doi.org/10.1089/jpm.2006.9.791>  
 [9] H. J. Lee, S. T. Park. A study on the attitudes of death, death education needs and reconciliation Students Welfare, *Journal of the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2, pp. 55-73, 2010.  
 [10] B. R. Jung,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preparatory education of death. Kyungpook,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0, pp. 49-60. 2006.  
 [11] Y. J. Kim, The Effect of the Youth perceived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self-leadership strategy,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77-85.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77>  
 [12] H. S. Choi, The Study of Health Information on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Their Blood Donation,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05-417. 2014.

- DOI: <http://dx.doi.org/10.14400/JDPM.2014.12.1.405>
- [13] Y. J. Kim, S. M. Kim, The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on Exercise Program for the Elderly Hypertensive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pp. 487-498.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1.487>
- [14] H. S. Kim, J. Lee, Y. M. Ok, A Qualitative Study onliving as a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pp. 565-574.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1.565>
- [15] C. H. Kim, S. Y. Jeong,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based on an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on Ethical Knowledge, Class Satisfaction, and Ethical Value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405-414.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405>
- [16] Y. J. Kim, The Influence of a General Hospital Nurse's Emotional Labor,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tres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9, pp. 245-254.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6.245>
- [17] K. I. Lee, S. H. Ryu, An Anaysis of current Facilities for the Physically Disabled in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1, pp. 35-41.2015.
- [18]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 [19] M. S. Shim, M. S. Lee, N. R. Oh, K. H. Kang, A Study on Duty Awareness of Public Health-Center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 no. 1, pp. 83-91, 2010.
- [20] W. H. Moon, Y. J. Kim,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Major Converged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2, pp. 1-11, 2015. living as a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pp. 565-574. 2014.

---

**황 혜 정(Hye-Jeong Hwang)**

[종신회원]



- 2010년 2월 : 건양대학교 의학박사
- 2011년 1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예방의학, 보건교육, 보건정책

---

**김 광 환(Kwang-Hwan Kim)**

[종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병원행정

---

**김 용 하(Yong-Ha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생산관리)
- 201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 행정 원장
- 2011년 7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교무부총장

<관심분야>

자원관리, 서비스품질인증, BSC

**이 무 식**(Lee Moo-Sik)

[종신회원]



- 1992년 2월 : 계명대학교 의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재)
- 2011년 8월 ~ 2012년 7월 : 미국 메이요클리닉 교환교수
- 2012년 4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관심분야>

보건의료관리,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병원관리

---

**심 문 숙**(Moon-Sook Shim)

[정회원]



- 199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노인보건, 지역사회보건간호